

元老建築家探訪



崔昌奎 씨



“個性과 思想이 담긴 작품만이 오랜동안...”

/ 出生地 / 咸南永興郡鎮坪面文峰里187 / 學歷 및 主要經歷 /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 東京興亞高工建築科卒業

□ 建築家協會會長歷任 □ 建築學會委員歷任 □ 建築士協會委員歷任 □ 芸總常任理事歷任 □ 建築士國家考試委員歷任 □ 空士 · 陸本建設顧問歷任 □ 産業大 · 檀國大講師歷任

/ 賞罰 / 國務總理賞 · 芸總會長賞 · 陸軍參謀總長賞 · 陸軍工兵監賞受賞

/ 著書 / “建築의 周辺” “建築과 旅情” / 訳書 / “SPACE TIME AND ARCHITECTURE” (S. GIEDION 著) “人間과 建築” (丹下健三 著) “建築과 都市” (〃) “빛나는 都市” (LE CORBUSIER 著) “現代建築의 創造” (川添登 著) “空間의 生命” (坂崎乙郎 著) / 主要設計 / A·I·U 본관 · 육군회관 · 국방부장관공관 · 포항해병사공관 · 육사박물관 · 공군대학 · 안암동 동성교회 · 전북예술회관 · 안양여고 등 다수.

◎ 對 談 / 張錫雄 (本誌 편집위원)



□ 이야기를 나누는 崔昌奎氏(左)와 張錫雄氏(右)

□ 画家의 「아프리에」같은 분위기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화창한 오후에 新進建築設計事務所를 방문했다.

도시의 온갖 소음과는 아랑곳없이, 들어선 사무실은 그대로 화가의 「아프리에」를 옮겨 놓은것 같았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느끼는 예리한 직선의 질서감각이 한순간 사라지고 있었다.

주인공 화가(?) 崔昌奎所長을 대하면서 이런 느낌은 하나의 확신으로 변한다. 半白의 장발은 걸걸한 특유의 음성과 함께 뒤섞이는 몸짓에 따라 출렁이며, 아직도 17세 소년이라고 우기는(?) 천진함에서 그대로 5월과 어린이를 떠오르게 한다.

커다란 長方形의 벽면을 직원들의 낙서로 온통채운 분위기는 분명 건축사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틈틈으로 照影되는 그는 역시 냉엄한 直線을 기막히게 요리하는 線의 支配者 建築士 崔昌奎씨였다.

이야기는 흡사 물이흐르듯 하나의 線(脈)을 이루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진행되어 가는데...

□ “건축은 상품이 아닙니다. 예술로서의 승화와 새로운 시도가 중요합니다. 未久에 우주건축시대가 올것으로...” □

□ 張 그림에도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사무실 분위기가 화가의 「아프리에」같습니다. 운영방침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것 같군요. 원로건축사로서 소장님의 建築士觀이라고 할까요, 그런것도 말씀해 주시죠.

□ 崔 네, 어려서는 화가가되려고 했죠. 재학시절에는 美展에도 入選했고 東京上野美術學校에 원서를 냈으나 父母님들의 반대로 결국 못했습니다. 결국 건축가가되었죠.

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원로입니까. 나이가 많아 그러시는 모양인데 난 아직 17세 소년입니다. (웃음)

운영방침이라고 할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제 의견은 건축은 技術的인 工学쪽 보다는 藝術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축은 작가의 個性과 思想이 담겨져야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칼라」가 生命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백여명가량의 직원들이 이 사무실을 거쳐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더군요. 이유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나는 설계사무소의 대형화까지 기업화는 참다운 건축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張 그러나 藝術로서의 건축문화, 작품활동이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사회구조가 비대해져가고 따라서 건축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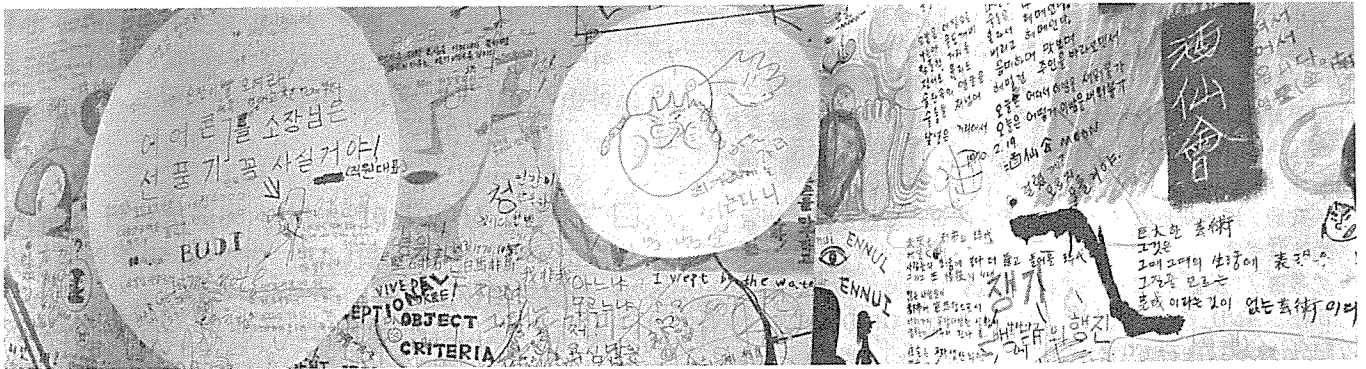
□崔 사회가 비대해져가고 건축도 「매머드」화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작가의 사상과 개성이 담겨진 작품만이 진정한 건축물인이상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문화를 위해서도 맹목적인 대형화는 지양해야죠. 최근의 새로운 경향으로 다시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예로 日本의 「시라이 세이찌」같은 분은 시골에 파묻혀서 정말 그사람의 개성과 사상이 스며있는 농촌주택등 소규모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들고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현실에 집착하지않고 빛나는 작품, 훌륭한 창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持論입니다.

大學에서 「現代建築史」를 강의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상품이 아니죠. 늘 연구하고

한 설계를 건축주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성해 놓았을때 이고, 두번째로는 나의 譯書가운데 S·Giedion이 쓴 「Space Time and Architecture」를 거의 2년반동안 다른일을 제쳐놓고 完訳해 놓았을때, 아! 드디어 건축가로서할 일을 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50여개국현대의 고대 건축물들을 보고 왔는데 조용한시간에 생각해 보면 그때 느꼈던 실망과 감동이 내가 건축가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감흥을 얻을 수 있었을까하는 건축가로서의 자부심 같은것을 느낍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역시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도 건축가로 키웠습니다.

□張 건축가가 훌륭한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것 같은 희열이고, 創作의 根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작품을 이뤄 놓으셨을 텐데 소장님의 뜻과 사상이 담긴 대표작을 소개해 주시죠.



□ 벽면을 온통 채운 온갖낙서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공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試圖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주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건축도 우주화되어야 할겁니다. 아직 우주건축이라는 개념이 정립된것은 아니겠지만 필경 누군가에 의해 대두될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따라 건축도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요.

□ 「다시 태어나도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도 건축가로 키웠습니다.」 □

□張 소장님의 著書를 보거나 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소장님의 人生觀이나 職業觀을 쉽게 엿 볼 수 있을것 같군요.

그동안 거의 40여년을 일해 오셨는데 어떤때 건축가로서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崔 한 서너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내가

□崔 이거참 愚問인것 같기도하고 賢問인것 같기도 한데요.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후랑크 로이트 라이트」가 말했듯이 건축이란 완전무결한 것이 없고 끝까지 무한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하잖아요. 80이 넘은 그에게 제자들이 代表作이 어떤것이냐고 물었더니 아직 없다고 말하고 요다음것이라고 했다 더군요. 그 후에 또 물었더니 역시 아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더군요. 그러니 이제 60을 막넘은 나에게...,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암동 동성교회인데 내가 기독교신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설계할 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와 종교나 건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목사가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지은거죠. 또 그 건물의 「이미테이션」은 어떤모방이나 표절이 아닌 나름대로의 작품입니다. 특히 현대건축의 「이미지」에 어떻게 한국적인 것을 가미할 수 있겠는가, 그점을 시도해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신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짓고있는 전북 예술회관인데 이것은 현상 공모에서 당선된 것으로 조형이나 재료가 지극히 소박하고 「심플」한것이 특징입니다. 건축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도입해 보자 하는것이 이 작품의 「테마」였습니다. 설계 그대로 짓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만 이것이 걸작이다, 대표작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여럿중에서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꼽는것 뿐입니다.

□ “나는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동년배나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은 우선 생각이나 행동이 신선하니까요. □

□ 張 지난해에는 “건축과 여정”이라는 책을 내시고 출판기념회에서 조성된금액을 건축가협회에 기증해서 젊은 건축도들을 위해 쓰도록 하셨는데, 후진들을 위해 한말씀 하신다면...

□ 崔 나는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우선 신선하니까요. 동년배나 나이먹은 사람들보다 좋아요.

제가 출판기념회에서 생긴돈을 후진양성을 위해 내놓은것은 건축가협회회장으로 있을 때 매년 우수한 신인들을 격려하고 키워주자는 뜻에서 신인 건축가상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이 어려워 지탱을 못했다가 지난해에 적은 돈입니다만 제가 낸돈으로 다시 소생하게 된것이죠. 이것은 제가 평소애하고 싶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돈이 생기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자라나는 그들에게 보다많은 투자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재목들이니까요.

그들에게 하고싶은말은 많이 있고, 많이보고, 많이듣고 하라는 것이죠.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그런것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것인지는 모릅니다



□ 내가 무슨 원로(元老)냐고 반문하는 崔所長

만, 무엇이든지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것이죠.

나는 靈感(inspiration)을 중요시합니다. 영감이란 작품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감은 조건없이 마구나 오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빚듯이 오랜동안 정성을 들여야만이 터져 나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읽고, 보고, 듣고, 또 소화를 할수없어도 좋으니 차곡차곡 쌓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때 어느시기에서 그것이 영감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그것을 형상화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작품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과외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그들과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나도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도 내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 張 네, 참으로 건강한 인생관 그리고 직업관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몸도 건강하셔서 훌륭한 작품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 崔 감사합니다. 전 아직 17세 소년이니까 그점에대해선 염려마십시오.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

◎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

“建築士”誌는 회원여러분들의 입과 귀와 눈을 대신하는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잘 사용하느냐 못사용하느냐 여부는 전혀 회원여러분들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畵誌, 쓸만한 그릇으로 키우는데에는 물론 회원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作品이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에 따라 좌우되죠. 하오니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글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건강하게 살찌도록 힘써주세요.

- 하시고싶은 모든 말씀
- 각종 경조사 / 그밖에 동정 / 소식
- 그밖에 뭐든지 좋고요.
- 시 / 수필 / 풍트 / 취미사진작품
- 각종작품 / 논문

※ 보내실 때는 가급적 원고용지에 써서 보내주시고요. 필자 사진과 원고 관련사진도 보내주시면 더욱 좋아요. 한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요. 꼭 원고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보낼 곳은 협회본부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